

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(마태 10,8)

박정연(데레사)

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

2005년 12월에 대전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미술심리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대학원 선배가 기**사회복지관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자신 대신에 미술 심리치료 10번만 해 달라며 나에게 부탁을 하였다. 선배는 나에게 연로하신 분들이니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 보라고 하여서 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성모병원의 사회사업팀을 찾아갔다. 그런데 내가 듣던 애기와 다르게 말기 암 환우분들이 계신 호스피스병동과 재활 치료를 하러 오는 뇌 병변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말에 난 정말 겁이 많이 났었다.

암 환우는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고 죽음을 앞둔 분들을 볼 자신도 없었고 호스피스 환우를 위한 미술심리치료를 해 본 경험도, 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.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인지라 정말 어렵게 어렵게 미술심리치료 10번을 했지만, 환우와의 치료 중에 꼭 내 부모 같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과 죽음을 앞둔 환우에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발언을 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여러 번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. 말기 암 환우 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난 호스피스병동 미술심리치료를 겨우겨우 10번을 한 후 사회복지사에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 자원봉사를 못하겠다고 뇌 병변 아이들만 미술심리치료하기로 하고 호스피스병동 심리치료는 그 뒤로 접었다.

그 당시 불교 신자였던 내가 교리를 받았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성모병원 자원봉사 기회가 나에게 와서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니 성모병원에서 자원봉사할 기회가 왔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며 자원봉사를 하러 다녔었다.

뇌 병변 아이들과의 미술심리치료에 익숙해질 즈음 호스피스팀의 수녀님께서 호스피스병동 미술심리치료를 다시 부탁하셨는데 그 부탁은 벌써 5번째였었다. 그전에는 수녀님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었는데 세례를 받고 복음 말씀 중에 자꾸 수녀님의 말씀이 떠올랐다. 그래서 왜 자꾸 나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지 묵상을 해보고 하느님께 전 몸만 빌려 드릴 테니까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라고... 하느님께 의탁하며 호스피스병동 심리치료 자원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. 예전과 다르게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날 말기 암 환우분과의 심리치료 전에 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. 미술심리치료 중간중간에도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수십 번 불렀다. 미술심리치료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하느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. 신기하게도 눈물이 많은 내가 미술심리치료 중에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날 지켜주신 것 같았고 하느님 덕분에 내가 맘 편하게 미

술심리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. 또 기도 중에도 환우분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니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고 미술심리치료 중에 너무 비쩍 말라 보기에 안쓰러운 암 환우분들의 손도 잡아드리고 그분들과 농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난 여유롭게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.

하지만 나와 함께 하셨던 환우분들이 자주 떠올라 나 스스로 많이 힘들었고 그만 하고 싶어지고, 냄새가 심하게 나는 날도 있고, 지칠 때가 너무 많았다. 그리고 젊은 암 환우분들을 만난 날이면 특히 “나도 저런 병에 걸리면 어찌지..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파하면 어찌지”라는 걱정과 불안감과 건강 염려증이 생겼다.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하느님께서 내가 너무 지칠 땐 신기하게 입원한 환우가 없어 병실이 텅텅 비어있는 적도 있었고,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몸과 마음이 바쁘게 해주셨고, 아픈 이들을 보며 나와 사랑하는 내 주위 사람들이 건강함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였고, 늘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찼던 나에게 현재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고, 날마다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을 알게 되었다. 나는 이렇게 조금이

라도 봉사할 수 있게 재능과 기회를 거저 주신 하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.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날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목이 맨다.

나에게 체험담을 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솔직히 난 거절하였다. 나보다 훨씬 많은 봉사를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,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인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도 못 주는 부끄러운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체험을 쓸 만한 자격이 있냐는 생각에 체험담을 쓰라는 말을 듣고 정말 망설였었다.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늘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,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들에 비해 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자원봉사 조금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같아 꺼려졌었다. 하지만 글을 써 내려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과 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져온다. 아무래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열심히 성당 다리고 더 힘차게 일하라는 하느님의 뜻으로 걸은 체험담이지만 반성문 좀 한 번 써보라 하신 것 같다.

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2019년 기관대표자회의 및 제12회 정기(대의원) 총회 :
박재순 전임회장, 황관옥 회장

제19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:
황관옥 회장, 이선희 이사, 유정희 이사, 박남준, 서울성모병원